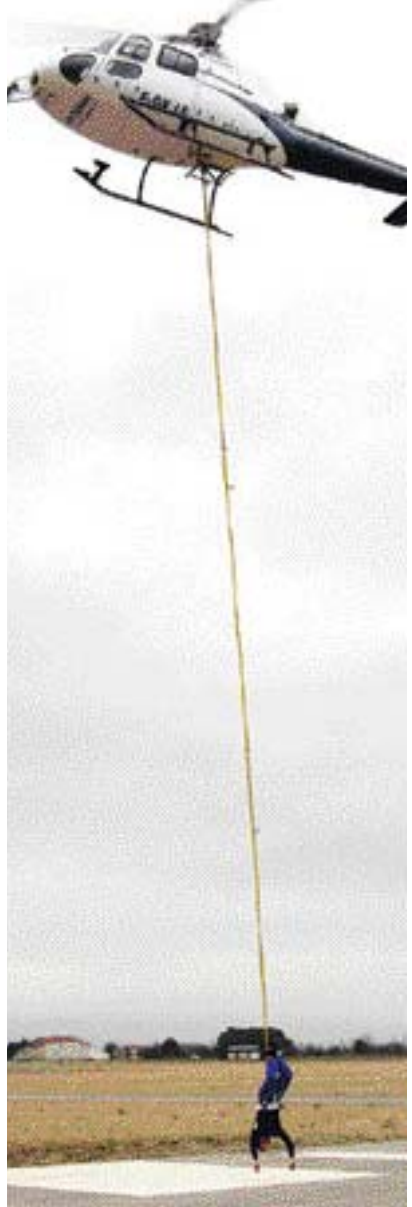


# 대인시장 → 문화난장 '발상의 대전환'



알텔 엠델세메드 작 'Helicoptere'

## 'D-18' 미리 보는

07  
08

## 광주비엔날레

## ■ 제안 섹션

"상식의 틀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세 개의 큰 마당 중 하나인 '제안(Position papers)' 섹션은 젊은 큐레이터 5명의 '실현의 장'이다. 5·18 광주항쟁을 형상화한 거리 축제형 퍼포먼스 등 '광주의 장소성'을 예술언어로 재탄생시킨 작품들이 선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공동화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시장이 미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광주비엔날레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사이버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등 젊은 큐레이터들의 독특한 '발상의 전환'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제안' 섹션은 광주롯데갤러리 큐레이터 박성현, 압델라 카름, 클레어 탄콘스, 김장언, 페트리 플로레스 등 5명의 아이디어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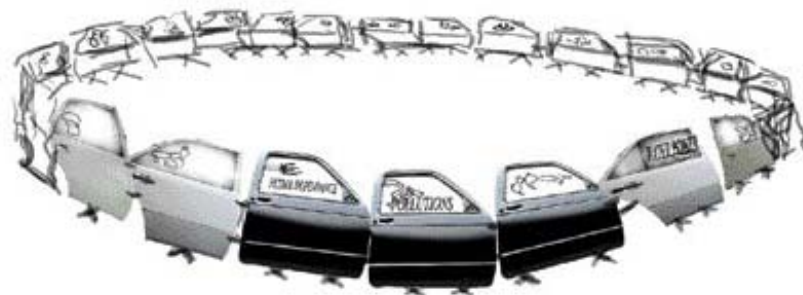
눈에 띄는 전시는 박성현씨가 기획하고, 마문호, 박문종, 신호은씨 등 광주·전남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복덕방 프로젝트'이다. '광주의 장소성'이 갖는 의미를 찾기 위해 대인 시장을 예술 난장으로 만들었다. 빈 점포가 전시장 역할을 하게 되고, 시장 상인들의 삶과 독특한 냄새 등이 '작품'의 일부가 된다. 남도의 대표 음식인 홍어를 소재로 대형 활인 매장의 공세 속에 초라해진 재래시장의 현재 모습을 조명한다. 또 세부 프로그램인 '파프리카 프로젝트'는 과일과 야채가 지닌 천연색소를 통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행사다. 각 야채가 지닌 색소인 클로로필(Chlorophyll), 피

숨을 조명한다. 또 세부 프로그램인 '파프리카 프로젝트'는 과일과 야채가 지닌 천연색소를 통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행사다. 각 야채가 지닌 색소인 클로로필(Chlorophyll), 피

인다. 200~500여명의 시민과 참가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참여하는 축제형 퍼포먼스로, 광주비엔날레에서 5·18 광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행사다. 모로코의 독립큐레이터 압델라 카름

## 젊은 큐레이터 5명 광주 지역성 표현

## 5·18 재현 퍼포먼스 등 볼거리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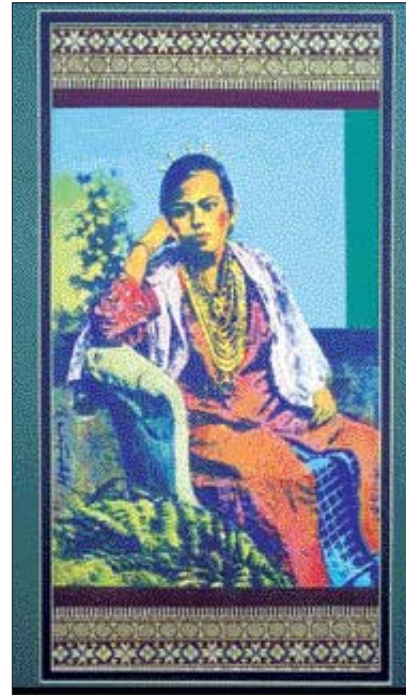


시무스 파렐 작 'CarDoors Korea'

코시아닌(Phycocyanin) 성분을 가계 이름으로 차용해 천연 색소를 현대 미술로 승화시켰다.

미국 뉴올리언스 현대미술센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클레어 탄콘스는 5·18 광주 항쟁을 재현하는 '봄'을 선보

은 현대의 국가관에 의문을 던지는 '상대적 조국'을 선보인다. 세계화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작가 5명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다. 또 모로코와 노르웨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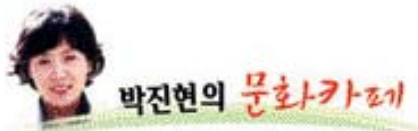
레자 피아다사 작 'Woman'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한다. 전시가 열리고, 이를 감상하는 관람객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된 셈이다. 작가, 관람객, 큐레이터 인터넷 등이 결합된다.

이밖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술비평가인 김장언씨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겪는 3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데릭 저먼의 영화 '블루', 비토리오 세사키의 영화 '밀라노의 기적', 지난해 세상을 떠났던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 등을 5명의 작가가 재해석했다.

필리핀국립대학교 미술사 교수인 페트리 플로레스는 동남아시아의 근현대사의 변화를 상징하는 '발원지에서의 방향전환'을 타이틀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진환의 문화카레

## 문화서포터즈를 위하여

마에스트로 정명훈씨는 오는 20일 지휘대에 서는 대신 피아노 앞에 앉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다. 물론 아예 지휘봉을 놓는 건 아니지만 이날 음악회에서 정씨는 많은 시간을 지휘자가 아닌, 피아니스트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날 정씨가 연주자로 '깜짝 외도'를 하게 된 것은 음악회를 주최한 유창중(63) 국립중앙박물관관장과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이하 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유물기증, 학술연구 지원, 후원기금 마련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정씨와의 인연은 지난 90년 당시 검사였던 유 회장이 유엔 마약 퇴치 친선대사로 정명훈을 천거하면서 시작됐다. 현역 검사 시절 마약 수사의 대부분을 불렀던 그는 고미술에 관심이 많은, 국립박물관의 '단골'이었다.

하지만 정씨가 유 회장의 러브콜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20년 가까이 교감을 나눈 개인적 친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립박물관 서포터즈를 자처한 유 회장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유 회장의 '박물관 사랑'은 각별하다. 지난 2005년 박물관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국립박물관의 실질적인 후원기관이 되기 위해 60대 이상 임원진을 50대의 '젊은파'로 긴급수선했다. 최근엔 '영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젊은 박물관 후원그룹을 양성하고 있다. 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천마회원'(기부금 1천만원 이상을 낸 회원)이란 제도를 운영, 현재 10억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물관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학술상' 덕분이다. 국립박물관의 저력은 학예사들의 연구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학에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 학예상 상금 총액을 2천400만원으로 늘렸다. 학예사를 대상으로 한 학술상 상금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박물관회는 국립박물관이 대영박물관 못지 않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중앙박물관이 박물관회의 후원을 듬뿍 받고 있다면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시향의 뒤에는 '광주미술관회'와 '광주시향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광사모)이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시립미술관을 후원하기 위해 발족된 광주미술관회에는 현재 약 500여명이 참여, 유망작가 초대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창립된 '광사모' 역시 공연터켓 사주기 운동 등 공연인구 저변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립박물관이 '글로벌 박물관'의 장기비전을 갖기까지에는 박물관회의 보살핌이 밑거름이 됐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시향이 아시아의 문화이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민의 한결같은 '응원'이 절대적이다. 서포터즈의 위력은 스포츠만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빛을 발한다. 문화는 사랑을 먹고 크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2008 광주비엔날레의 밤

### 26일 서울서 150명 초청 홍보 행사

제7회광주비엔날레를 소개하는 대규모 홍보 행사가 개막 10일을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17일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복합문화공간인 '크링(Kring)'에서 개막 D-10 기념행사인 '2008광주비엔날레의 밤'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미술평론가와 미술대학 교수, 전시기획자, 각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초청된다.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이 전시기획과 작품 등을 소개하고, 명예홍보대사들도 참석해 '광주 알리기'에 나선다. 건국대 장 풀로 교수는 샌드 애니메이션을 시연하고, 최수중·하하리 부부도 분위기를 돋운다.

한편 재단은 18일 광주 세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광주로 옮겨온 작품을 개봉한 뒤 본격적인 작품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미술관회 '아름다운 비상을 꿈꾸며'

### 상계갤러리, 기획 초대전

광주미술관회(회장 김응서)가 18~24일까지 상계갤러리에서 제3회 기획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분청사기 부문에서 활동하는 4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비상을 꿈꾸며'를 주제로 강경숙, 김소남, 김윤수, 김현숙, 노근진, 맹범호, 서봉환, 신영재, 이정자, 임승택, 차숙자, 황기록, 황수무씨 등이 작품을 전시한다.

광주미술관회는 지난 2004년 광주시립미술관을 후원하기 위해 창립됐으며, 현재 500여 명의 미술애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미술관과 진도미술관 등의 전시회를 함께 감상하고, 지역 유명작가 초대전과 미술이론 강좌를 열어 미술인구 저변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형권씨 첫 번째 시집

### '슬픈 것이 흘러...' 펴내

시인이면서 오랫동안 문학원 단사 현 문가로서도 활동해 온 이형권씨가 첫 번째 시집 '슬픈 것이 흘러가는 시간'(청년사)을 펴냈다. 시집은 전반부 50편과 후반부 18편으로 나뉘어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서정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시들로 채워졌다. 시집에는 수 년 동안 자연과 함께했던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 여행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이미기자 emlee@kwangju.co.kr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메가박스

구.립원역사거리 ☎에미1544-0600

1관	다크나이트 (15세)	최고등급
2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3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4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5관	다크나이트 (15세)	
6관	아기와나 (12세)	
7관	당신이 잠든 사이에 (15세)/엑스파일 (15세)	
8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월-E(전제)	
9관	다찌마와 리 (12세)	

영화 학원 이수하면 정액과 혜택이 쏟아진다!(~2008.08.31)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월-E(전제)/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2관	다찌마와 리 (12세)	
3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4관	당신이 잠든 사이에 (15세)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6관	넘은곳에 (15세)/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7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육외 주차장 300대 • 0관로 심야상영  
• 여름학기특선-매일심야상영(8월10일까지) •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

##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역환원점)

1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2관	넘은곳에 (15세)/당신이 잠든 사이에 (15세)	
3관	아기와나 (12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월-E(전제)/월-E(전제)/미이라3 (12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8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호는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역환원점



세깁있는 영화사랑 • www.cinusa.co.kr / 1544-0070

##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2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3관	다찌마와 리 (12세)	
4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미이라3 (12세)	
5관	월-E(전제)/당신이 잠든 사이에 (15세)	
6관	아기와나 (12세)	
7관	다크나이트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청 할인혜택  
• 씨너스특시 사무니(모정시-오후11시)



고려시영 고대극장 • www.hamcinema.co.kr / 1588-9120

##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이스포텍 ☎ 267-7777

1관	월-E(전제)/넘은곳에 (15세)	
2관	다크나이트 (15세)	
3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4관	다찌마와 리 (12세)	
5관	다크나이트 (15세)/미이라3 (12세)	
6관	아기와나 (12세)/눈 놀 놀 (15세)	
7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8관	엑스 파일-나는밀고싶다 (15세)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심야  
• 하이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82-0825  
• 하이 통신키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당구장



새로운기쁨 • www.zimusicinema.com/www.je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2관	다찌마와 리 (12세)	
3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6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넘은곳에 (15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

